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성종, 공인석(김영숙), 김경상(김해숙), 김광호, 김기택(배숙자), 김길자, 김순석(임영덕), 김재인(이강우), 김춘화, 문영원(이명희), 박권제(송영숙), 박현섭(권희정), 서진화(최봉순), 석형기(이희순B), 심해진, 안아용, 유광희, 윤정호(유옥자), 윤조훈(이언숙), 이근자, 이상규, 이일로(박현숙), 이종문, 이호준(안금자), 임영자, 임현희, 장명원(김옥자), 장명환, 정은천, 조규영(유혜란), 주경력, 채희춘(황영옥), 천세력(영명분), 최선미, 최성환, 최정란.

☪ **선교현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권희정, 김길자, 김명숙, 김미희, 김성옥, 김순석(임영덕), 김지한, 김해숙, 박권제, 박복례, 박현섭, 서종석, 안아용, 유호근(손명화), 윤영준, 윤조훈(이언숙), 이경자, 이근자, 이명희, 이옥남, 이인숙, 이일로, 이종문, 임영자, 장명원, 최기훈(정계숙), 최봉순, 최성현(윤정자), 최순재, 최정란, 현운건(이윤옥), 바울남전도회.

☪ **감사현금**

이진우(최선미), 김성종, 이필레, 강영성, 김병을(이영숙), 김준구(이소은), 박부웅(최귀남), 박정숙, 방석태(차옥자), 백경자, 백성원, 신현진, 안아용, 윤정호, 윤조훈(이언숙), 이경자, 이기자, 이종문, 이춘호, 임만순(서영숙), 장명환, 전영선, 최혜선, 드보라여전도회, 무 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이필레, 김민성, 김민혁, 김창숙, 김춘화, 민옥희, 박복례, 박은숙, 박정숙, 박희영, 배병찬, 서재희, 송백현, 심순옥, 이경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인숙, 주성탁, 최봉순, 최효자, 무 명.

주간 성경연구 * 주일 5장, 평일 3장씩 읽으세요. *

2014년 제 8주 : 신명기 21장 - 여호수아 9장				
주 일	신명기 21 - 25장			
월요일	신명기 26 - 28장	목요일	여호수아 1 - 3장	
화요일	신명기 29 - 31장	금요일	여호수아 4 - 6장	
수요일	신명기 32 - 34장	토요일	여호수아 7 - 9장	

시무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이일로 천세력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윤창식 방현옥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전 도 사	김성종 이필레	
	교육전도사	이승이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산나 : 김안나 시온·예멘 : 최원지 엔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해윤
		피아노	강민주 김상훈 김미희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김해진 고광훈 장명환 고승진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이집트 : 김진숙 수리남 : 안석렬 이성옥 A X국 : 김해월 A X국 : 박동권 김명화 A X국 : 이분옥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태국 : 박명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2014. 2. 16. 주일 예배 설교

믿지 않는 자와 영예를 함께 매지 말라

본문 : 고린도후서 6장 14 - 7장 1절 설교 : 이진우 목사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이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사도바울은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도바울을 핏줄고, 비판하며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사도바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불신자들과 영예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는 있어서 불신자들과의 단절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은 사실 고린도전·후서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사도바울은 불신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와 같이 우상숭배가 성행된 도시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순수한 무종교인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문화 속에서 혹은 전통과 그 습관에 따라 그들은 크고 작은 신들을 섬기고 그 수많은 종교 속에 거했던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들과 영예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두 동물이 함께 영예를 같이 하여 일할 수 없는 것처럼 참 신자와 불신자는 함께 영적인 일에 그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동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함께 일하는 동역 뿐 아니라 깊이 인간적으로 사귀며 깊은 교제 또한 불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영예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1. 근본적 특성상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16절)

1) 본문에서는 신자와 불신자에 대하여 다섯 가지로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여기 다섯 가지 대조는 신자와 불신자가 영예를 같이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특별히 사도바울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쓰고 있는 동사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함께, 상관, 조화, 상관, 일치 이 다섯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라고 했는데 여기“함께”라는 함께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종교적인 의로움을 뜻하는 것이나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의 율법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의 경건하지 못한 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경건하지 못한 세속적인 삶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에서 이“사귀다.(코이노이라)”는 “참여한다(고전 10:16)”는 뜻입니다. 결국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며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과익 교제 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 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조화”는 같은 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벨리알은 하브리말로 가치 없는 것, 악한 것을 뜻하는 말로 사단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즉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선한 것과 선하지 않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고 했습니다. “상관(메리스)”은 분깃, 혹은 유익을 주는 좋은 것을 뜻합니다. 즉 신자와 불신자는 같은 물건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뜻인데 신자는 천국을 소유하고 상속받는 자이지만 불신자는 자옥에 들어가니 같은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신분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일치”는 “성카타메시스”인데 이는 “같이 앓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일치”는 다섯 가지 대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죽은 우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어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특별히 오늘날 이 말세 말단의 시대 종교적 동향을 이루고자 WCC 등 많은 단체와 사람들 사이에 종교의 통합과 일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단체와 교단과 사회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 영성해야 할 일들입니다. 결단코 신자와 불신자는 빛과 어두움과 같이 완전히 구별되어 서로 사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천국을 상속 받을 자들입니다. 불신자는 자옥에 들어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2014

No. 40 - 8

2014. 2. 23.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3 마길 18(개봉동)
- 18 Gyeongin-ro 33Ma-gil,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스 : 2689-1230
- 홈페이지 : www.sunghyeon.or.kr



순서	1 부	2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3월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 회	기 도	기도
1주 (2일)	장윤주 집사	김병을 장로	최기남 권사	김병을 장로	유원호 집사	서재희 권사
2주 (9일)	홍정훈 집사	최기훈 장로	이연숙 권사	방석대 장로	이일로 장로	전순봉 권사
3주 (16일)	박무웅 집사	윤정호 장로	서재희 권사	윤병호 장로	홍정훈 집사	임영준 권사
4주 (23일)	박영준 집사	배경환 장로	전순봉 권사	윤정호 장로	박무웅 집사	신소옥 권사
5주 (30일)	공권재 집사	임민철 장로	임영숙 권사	최기훈 장로	박종삼 집사	박현숙 권사
예배안내	이일로 천석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